

## 북한선교전략으로써 말씀치유 (Logotherapy)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임 현 만(목사, 서울 행복드림교회,  
한민족가족치유연구소)

### 들어가는 말

통일 독일 이전에, 동방 정책을 추진하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총리는 통일은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공공연히 말하였으며, 통일 직전에 서독에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는 95%이상의 국민이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은 5% 미만이었다. 특히 서독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1991년부터 15년간 지출된 통일비용은 총 1조 4,000억 유로(1995년 환율로 2조 7,020억 DM, 한화 약 1,750조 원) 이상이 통일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그렇게 서로가 열망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진 독일 통일 이후 지금 서독과 동독 국민 양쪽 모두는 통일 이전 보다 오히려 더 낮설어지고 멀어져서 40% 이상의 서독인들은 동독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14%

---

1) 평화문제연구소. “독일의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pa1983&logNo=159262927>.  
2012년 9월20일 발췌.

의 동독인들도 서독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sup>2)</sup>

제도적이고 외적인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정신적이고 내적인 통일 즉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일 후유증의 한 예를 독일의 통일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정부로부터 주어지고 계획되어지는 사회주의 체계에서 자유경쟁체제로 생존해야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공허감은 동독인들의 자살률이 통일 전보다 10배 이상이나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sup>3)</sup>

남북한의 경우, 정상회담 이후 열린 통일의 물꼬는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결국 언제인가 남한과 북한도 통일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주체사상으로 획일화된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있어서 통일 이후뿐만 아닌 통일 이전에도 그들의 억압되고 상한 정신 체제를 염두에 둔 선교전략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요한네스 벨끄윌(Johannes Verkuyl)은 “이데올로기는 특정된 한 사람 혹은 몇 명의 엘리트 그룹이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 만드는 미래의 청사진이다”라고 정의하며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할 사람들의 사상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 선교사가 행해야할 기본 임무라고 주장한다.<sup>4)</sup>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칙이 강요되는 공식 규범에 의해 모든 삶이 그 원칙과 규범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강한 억압과 통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결같은 보고 및 간증은 동독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압되고 상한 북한 주민들의 정신 체제를 보여준다 (서동익 1995; 이순옥 1998; 장기홍 1993; 전철우 1994).

2) Hans-Joachim Maaz, “분단된 나라, 분단된 마음 그리고 통일의 과정.”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한-독 학술회의, 2002년 4월 25일 심포지움.

3) 박갑두, “남한과 북한의 관계성에서 본 북한사람들의 단체 적개심” 『남한과 북한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조화』, 1993년 6월 한국 심리학 연합회 학술 세미나.

4) Johannes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374.

이 점은 북한선교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가르치고 있는 헤셀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의 미래선교학에 있어서의 심리 상담학과 연결은 훌륭한 선견자적 견해이다. 그는 트리니티 저널(Trinity Journal)의 “선교사 심리학과 상담”(Missionary Psychology and Counseling - A Timely Birth?)이라는 논고의 결론에서 신학교는 이제 선교학과 내에 심리상담학의 개설은 물론 목회심리상담학과에서 선교사 심리상담학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해서 본 소고에서는 “개개인 환자에 대한 존재론적인 분석이나 개개인의 본질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이다”<sup>6)</sup>라며 심리치유적 인류학을 주장한 프랑클(Viktor E. Frankl)의 말씀치유(로고테라피) 이론이 한국 선교 통일에서 가질 수 있는 북한선교 전략의 한 가능성으로 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직접 북한에서의 삶의 경험과 현지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지 못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간증과 보고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연구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로고테라피의 여러 치유 요법을 상술하는 것은 생략하고 로고테라피의 이론이 가지는 북한 선교의 필요성 및 가능성 연구에만 한정하려고 한다.

## 1. 북한 선교 전략에 있어서 로고테라피의 필요성

남북한은 비록 같은 뿌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지난 반세기 동안 철저히 통제되고 반목(反目)화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이라는 것이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특히 남한 사람들에 비해 더 강한 억압과 통제 안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문화 충격으

5) David J. Hesselgrave, "Missionary psychology and counseling - a timely birth?" *Trinity Journal* 4 Spring (1993): 81.

6) Viktor E. Frankl. *From death-camp to existentialism: Psychiatrist's path to a new therapy* (Boston: Bacon Press, 1959), 29-30.

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히버트(Paul Hiebert)가 주장하듯이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선교 대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7).

북한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칼뱅(John Calvin)의 말을 인용한 차영배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신앙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있기에, 심지어 미개인들도 종교를 가지지 않고는 살수가 없기에 북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현상으로서 김일성을 신으로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이씨 조선의 왕정이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철저히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거의 신성에 가까운 왕에 대한 개념은 김일성 부자로 하여금 신앙적 독재 체제를 용이하게 하였을 것이다.

북한을 이탈한 이후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김현희는 북한에서 본인이 사실상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신앙했다고 고백하였다.<sup>9)</sup> 참으로 북한 사람들은 어버이 수령을 위대한 지도자이며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이미지로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고 및 간증은 전해주고 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같은 보고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북한 전체 사회의 문화 및 교육 전반에 걸친 김일성 부자의 숭배에 대한 주체사상의 조직적인 체제에 기인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어릴 적부터 탁아소 및 유치원 등에 맡겨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마다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향하여 감사하며 먹도록 교육하고 있고, 전체 교육 과정에서의 교과 내용은 사상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장기홍 1993; 문영수 1987).

필자의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세뇌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북한에서 당원으로 사역하다

7) Paul G. Hiebert, “The missiological implications of an epistemological shift.” *Theological Students Fellowship Bulletin*, March (1985): 14.

8) 차영배. “기독교는 유일하다”. 전호진 편, 『성경과 신학: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총고』 (서울: 기독교 지혜사, 1992), 132.

9)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서울: 고려원, 1991), 155.

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이후 탈북한 이순옥의 보고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릴 적부터 주체사상이라는 획일 사상으로 세뇌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뇌교육을 어디 특별한 이런 때와 장소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한다. 이남에서는 뱃속에서부터 태교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 자리잡고 있을 때부터 엄마 자체 생각이 김일성한테 항상 충성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충성해서 우리가문이 잘되고 빛을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산모 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가 5달 정도 지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웃고 하여간 말귀를 알던 모르던 같이 흉내낸다. 아기들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가눌 때부터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라고 가르친다. 애들한테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해도 유치원에 가도 탁아소에 가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만 생활 속에서 가르친다. 내가 세뇌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그게 모태신앙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벌써 6-7개월 정도 되어서 아버지 원수님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본단 얘깁니다. 앉고 있어도, 엮고 있어도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단 자체가 아이들이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sup>10)</sup>

그와 같은 전체사회 속에서 사는 북한 사람들의 인격구조를 연구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민성길 교수는 북한 소아 청소년의 인격 발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애착 이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어머니와의 조기 분리, 복수의

---

10) Hun-Man Im. "Document text report & Coding repor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Ph.D Field Research Report* (2000): 90.

부모상이라는 경험은 애착 형성에 혼란을 주어 수동적 의존적 성향을 강화하거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지연시키고 폭력적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조장되는 등 정서적 발달이 불안정하거나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 소련 스탈린주의 시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실제 부모보다 더 강력한 아버지 수령에 대한 의식은 피부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부모의 상과 갈등을 야기하여, 무의식에 양가 감정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sup>11)</sup>

민성길은 계속하여 북한 사람들이 소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통제 사회 속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남녀노소 전 국민이 수령과 당에 대한 강한 의존심과 충실성을 세뇌 받음으로 내면적 상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북한 사람의 정치 인식의 근거가 되는 혁명적 수령관이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보고 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동일시하는 단순 논법의 이론으로, 이를 인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령과 당, 인민은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 있어, 대중은 생명의 은인인 아버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수령과 당은 강할 뿐만 아니라 옳고 선하고, 한없이 베풀어주는 존재이다. 개인은 받은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신념이 반복 학습되고 있다.”<sup>12)</sup>

김일성 대학과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하여 침례신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김명세 북한 이탈 주민은 그러한 내면적 갈등을 겪는 북한 사람들의 정신 체제에 기독교야말로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1) 민성길, “북한 사람의 인격 구조”, 『통일 연구』 5권.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 연구원, 2001), 9.

12) 민성길, 19.

고 한다. 즉, 북한 사회에서 살던 북한 주민들이 신앙처럼 믿고 의지하던 사상 체제가 없어진 사회의 정신 체제에는 기독교가 대안적 체제로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sup>13)</sup>

북한 이탈주민들은 주체사상으로 획일화된 북한 사회를 유사 기독교 사회로 규정하며 그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남한 기독교인들의 구역 예배 모임은 북한의 당 세포 회의와 같으며, 기독교인들의 성령 체험은 북한 사람들이 수령을 한번 만나는 것과 같고, 주일 예배와 고백은 한주에 한 번씩 자기비판을 하는 생활 총화와 같으며,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찬양은 김일성 부자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같다는 것이다.<sup>14)</sup>

와그너(Peter Wagner)는 어느 선교 대상국의 국민이 급박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를 겪으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빠른 수용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언제든지 급진적이거나 극단적인 사회와 정치의 변화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 안에 있는 교회들은 급성장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해 오던 주변의 사회가 붕괴되거나 급변할 때 그들의 삶의 뿌리를 내릴 새로운 근원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에 노출되어 있게 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자신들의 공동체에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통합시키는 분이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sup>15)</sup>

특히 사상적으로 통제되고 억압받던 사회가 붕괴되거나 급변하게 되어 그들을 억누르고 통제하던 사상 체제가 들려지면 그러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던 국민들은 아주 강하게 복음에 수용적이 된다고 와그너는 주장하는

13) 김명세. 1997. “교회를 향한 탈북자들의 속 이야기.” 『목회와 신학』 6월호. (1997): 61.

14) 조갑제, 정호성. 『김현희의 하느님』. (서울: 고시계, 1990), 209-211.

15) Peter C. Wagner,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Chicago: Moody Press, 1971), 112.

데<sup>16)</sup> 만일 와그너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북한 사회야말로 통일이 오거나, 혹은 그 이전에 그들을 강하게 통제하던 사회주의체제 혹은 주체사상적 체제가 붕괴하게 되면, 가히 폭발적으로 복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북한의 주체사상 연구소 소장인 박승덕이 “주체사상은 북한을 지탱해주고 있는 유일한 사상체계” 라고 천명하듯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사상체제로 획일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다.<sup>17)</sup>

벨커(Thomas J. Belke)는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주체사상은 북한의 삶 모든 면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유일한 척도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sup>18)</sup> 그와 같은 주체사상이 붕괴된 상황이 오면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커다란 수용성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와그너의 이론이다.

그러나 필자가 북한 이탈 주민 18명과 남한의 북한 연구가 4명의 인터뷰한 내용을 NVIVO 인류학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주체사상 체제하에 살던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수용성의 가능 여부 및 반응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부정적인 요소도 양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북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 체제가 붕괴된 이후 기독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오히려 주체사상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 거부하고 회피할 것이라는 양극단적 반응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비교하여달라는 필자의 질문에 응답한 두 명의 북한 이탈 주민과 두 명의 남한 전문가가 보고한 인터뷰 내용을 대표로 소개하면

16)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가 그들을 억압하던 대상이 마침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아주 높은 수용성을 보인다. 사회주의 사상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적합한 의미의 내용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 의심할 바 없이 수많은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 사상에서 그리스도를 택하게 될 것이다” (Wagner, 114-15).

17) 박승덕, “주체사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160.

18) Thomas J. Belke, *Juche : A Christian study of North Korea's state religion* (Bartlesville, OK: Living Sacrifice Book Company, 1999), 38.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군대 장교로 생활한 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의 유사 기독교 체제인 주체사상 체제가 북한 주민들이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전도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쉬울 수도 있다. 북한은 김부자를 신처럼 모셨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북한 사람들이 김부자에 대한 열정이 더 크다. 남한 사람들은 3대가 예수를 믿는 특별한 집안이 아닌 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어딜 가나 불이 안 들어오는 시골의 작은 마을 까지도 태어났으면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부터 알아야 되니까... 사실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을 그대로 틀 바꿔서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어려운 건 없다. 딱 같다. 이름만 다르다.”<sup>19)</sup>

그러나 그와 반대로 북한에서 정보부원으로 활동한 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장애적 요소가 있다며 북한의 주체사상 체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쪽 기독교를 선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래 동안 그런 주체사상이라든가 수령 우상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다시 어떤 사상이라든가 종교에, 그쪽 사람들에게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였기에 그런 것들을 다시는 갖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그런 것들에 질릴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이다. 둘째로 어려서부터 원하지 않는 조직생활이 습관 되다 못해 질리다 보니까 교회라는 어떤 교회에 나가서 마치 내가 조직생활을 하고 또 다는 새로운 조직에 예측되

---

19) Hun-Man Im, 245.

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反)종교 특히나 반(反)기독교 교육이다. 북한에서는 불교에 대한 반불교적인 교육을 제 생각에는 우매하다는 생각뿐이지 그렇게 심하게 받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반기독교 교육이다. 6·25때 북한이 미국에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불 때는 다 이긴 전쟁을 미국 때문에 졌으니까 뜻을 못 이룬 것이 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기독교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를 나쁘게 선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니까 사랑이요 박애요 하면서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대포를 들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다. 그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들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쁘게 생각한다.”<sup>20)</sup>

신경 정신과 의사로서 중국 과 북한 국경 지대에서 숨어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방문 치유하고, 남한에 정착해 살며 신경 정신적 장애를 호소해 온 북한 이탈 주민을 상담했던 이성훈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북한 사람들은 신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록 무신론이지만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하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그들은 아주 빠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들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적인 체제 속으로 변환시키는데 아주 익숙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빠른 속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점이 되고 위험합니다. 그들이 주체사상이라는 사상 체제 안에서 김일성이라는 그들의 신을 사회 체제 안에서 만난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에 사실은 진정한 복음을 접하게 해주는 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지배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유린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20) Hun-Man Im, 140.

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북한 사람들의 세뇌된 선지식과 개념 그리고 경험이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강한 종교 단체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 우상적인 방법을 가지면 거부할 것입니다.”<sup>21)</sup>

김일성은 사망했으나 오히려 그렇게 죽음으로써 진짜 신이 되어 북한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북한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김일성을 제사하고 숭배하도록 한 북한 주체사상의 실상을 이반석은 북한을 국가의 개념보다는 사교적인 집단으로 볼 것을 주장하며 북한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깊이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물들어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의 통치자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 김정일은 북한의 신성한 지도자이며, 신격화된 김일성의 아들이고, 그가 대꾸해야 할 어떠한 실체나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과 김정일 숭배는 사교(邪敎)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여러 속성들과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북한을 나라로 간주하기 보다는 사교집단과 동일시하여 취급하는 것이 외국이 보다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공식화하고 집행하기에 바람직하며, 차후의 단계는 그러한 사교집단이 폭력적인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적인 사교집단은 전형적으로 온건한 사교집단과는 정반대의 가장 극단적인 속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죽음, 대혁명, 또는 폭력 등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특성이 있다. 폭력이나 목숨을 건 개인숭배는 앞으로 다가올 대혁명을 위한 것이

---

21) Hun-Man Im, 210.

며, 그러한 때를 준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가장 과격한 사교집단의 양상을 띠고 있는 북한은 수년간의 북한 전역에 걸친 기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sup>22)</sup>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인 민성길은 강하게 억압되고 통제된 북한 사회에 살아야하는 북한 사람들은 분노, 피해의식, 상실감, 무력감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침체와 우울증 같은 소위 신경성 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북한 사회는 이러한 학습된 무력감이 학습되고, 지배하는 사회로 보여진다. 북한 사람의 지친 듯한 무표정한 얼굴 표정, 말이 적음, 통제된 신중한 언동,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라앉은 듯한 사회 분위기 등은 우울증이 사회 전체에 산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면,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듯이, 분노와 공격성의 극치로서 ‘너 죽고 나 죽자’하는 심정이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적을 공격하거나, 차마 남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화살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 결과, 자학이나 자해 또는 자살하기도 하는데, 이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극단적인 반응의 예가 된다.”<sup>23)</sup>

그와 같이 억압되어 내재된 분노와 공격성적인 정서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적대 세력에 해당하는 사탄과 그에 소속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듯 기독교를 적대세력으로 대적하고 미워하도록 세뇌 학습받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사람들은 무신론적 사회주의로 그 사상이 무장되어있기에 기독교의 유신론적 변종으로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로고테라피를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억압되고 통제되어 획일화된 주체사상 체제 사회에 살면서 가지게 될

22) Hun-Man Im, 91.

23) 민성길, “북한사람의 인격구조” 『통일연구』 제5권 2001, 30-31.

여러 정신적 장애 특히 삶의 궁극적 의미를 상실한 북한 사람들에게 궁극적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로고테라피는 훌륭한 치유적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북한 선교 전략으로서 로고테라피의 가능성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에서 그 명칭을 따온 로고테라피의 근본적인 이론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생을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피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 주된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설령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의미가 있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수용한다"는 것이다.<sup>24)</sup>

프랑클(Frankl)의 의미요법 이론에 의하면 "삶의 의미는 주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이다."<sup>25)</sup> 특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존하는 삶의 근본적 가치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 생의 의미는 곧 자신이 해야 할 사역에서 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창작적 가치'(creative value),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거나 의미있는 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 그리고 인생의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의연한 태도로 그 고통을 맞는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로 분류한다.<sup>26)</sup>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극도로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독특한 내면적 어려움들 외에도 피할

---

24)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84), 136.

25)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8), 62.

26)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84), 133.

수 없는 사회적 조건들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정서를 들라면 ‘한(恨)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공통정서로 한을 일반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눈물도 마음대로 흘려서는 안 되는 철저히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아야하는 북한 사람들이야말로 한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을 정신세계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정신 심리의 실재(實在)로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치유하는데 있어서 심리학을 적합한 도구로 인식한 이재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이란 억눌린 사람들이 갖는 쌓여진 증오심, 피해의식, 좌절감, 허무감, 분노, 적개심, 슬픔, 무력감, 원망, 서러움이다. 한이란 위의 언급한 모든 감정이 복합된 감정이다”<sup>27)</sup>

즉, ‘한’을 피할 수 없는 한계에서 내면에 적재된 고통이라고 정의한다면 로고테라피를 개발한 유대인 심리학자 프랑클은 그 ‘한’을 깊이 체득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중 아우슈비치 수용소를 비롯한 독일 수용소에서 본인은 물론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로고테라피를 적용해 그들이 당면했던 극한 내면적 고통과 한의 문제들을 자신들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훌륭하게 극복하게 하였다.

북한 선교 전략의 필요성으로서 그리고 가능성으로서 로고테라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왜 다른 여타 정신심리학보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를 우선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겠다.

프랑클은 프로이드나 다른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아닌,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따라 정해진 결과를 내는 너무 기계론적이며 목적론적인 존재로 취급하였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소중한 내용들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한다.<sup>28)</sup> 심지어 신경정신과 의사

27) Jae-Hoon Lee, *The Exploration of the Inner Wounds-Han*, (Atlanta: Scholars Press, 1994), 230.

28) Viktor E. Frankl, Logos and existence in log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 no. 1 (1953): 8.

에게 보내지는 현대의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직자들에게 가서 상담해야하는 생의 존재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프랑클은 주장한다.<sup>29)</sup>

그러하기에 로고테라피 학자인 트위디(Donald Tweedie)는 로고테라피가 비록 기독교 인류학은 아니지만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타 세속적 심리학과는 다른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술적인 개념으로 로고테라피는 비록 기독교 인류학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같은 강조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로고테라피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자료들을 보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를 성경에서 단정적이고 함축성 있는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은 오로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프랑클의 인류학 즉 사람을 그와 같이 경험적이고 존재론적 분석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성경에서 확인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큰 보탬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sup>30)</sup>

로고테라피가 여타 세속적 정신심리학과는 달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질환들을 어릴 적 경험했던 이드(Id)와 자아(Ego)의 충돌의 산물로 보고 사람을 쾌락을 쫓는 존재로 혹은 권력을 쫓는 존재로서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가능한 피하거나 떨어내 버리려고만 하는 다른 여타 세속적 심리학 이론과는 다르다. 삶의 고통의 의미를 오히려 사람이 그 고통의

---

29) Viktor E. Frankl. "The concept of man in psychotherapy," *Pastoral Psychotherapy*, 6, No. 58 (1995 November): 16.

30) Donald Tweedie, *Logotherapy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1), 162-64.

의미를 이해하면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강하게 존속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프랑클의 주장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고통의 생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접근점이 될 것이다. 또한 로고테라피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신앙적인 변증이 아닌 논리적인 논증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왜곡된 삶의 의미를 논리적인 논증에 의해 세뇌 학습된 북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이 될 것이다.

필자가 인터뷰한 북한 이탈 주민들 전부는 거의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이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동일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람이란 가장 발달된 물질세계 발전의 특출한 산물로써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3대 본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면서 생존해나가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뇌의 뇌수와 같은 수령의 명령을 받드는 관계인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는 이론으로 발전되는데 그 이론은 곧 사람에게 있어 사회 정치적 생명<sup>31)</sup>이 사람을 수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주체형 사람으로서 특징지어 주는 영생이라고 하며 사람은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주는 수령을 뇌의 뇌수로서 존중하고 충성해야 한다고 사람의 존재 의의를 보도하고 있다.

프랑클이 주장하는 사람의 생의 의미는 만들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주체사상에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사람의 생존 의미를 강제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강제로 주어진 삶의 의미는 필자가 인터뷰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고와 같이 그러한 사상을 강요하는 체제가 없어도 삶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한 깊은 공허감과 분노라는 상처만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

31)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 육체적 생명이 생명 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한마당 편집부 1988, 19)



수 있다.

탈북한 이후 남한에서 남북통일연구원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김명세의 말은 모든 것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나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 동안 신뢰해 왔던 김일성 부자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인한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루어 생각하게 해 준다:

“북한에 살면서 북한의 이념적 삶에 한이 있지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네요.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언론 매체가 북한 전체를 안 밝히기에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며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북한사람들이 서울의 현실을 보면 속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최소한 백성을 생각하나? 얼마나 인민을 많이 들먹이고 이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 잘 아는 김씨가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는 중앙당에서 김정일 측근이었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장래가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데 출장 목적은 김일성과 김정일 건강 기구를 사러 다니다 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그런 사람을 개인 김씨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sup>32)</sup>

중국과의 무역 관계로 북한을 나온 이후 북한의 실체를 깨닫고 탈북한 김대호 북한 이탈 주민은 유물론적 사고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 무역 관계로 갔다가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헛된 것을 추구했고 내가 너무나 빨강다는 생각이 들었죠. 스물 셋에 당원이 되어서 김일성이 최고인줄 알고 살았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진실은 분명하죠. 그건 한순간이죠. 분명한 진리니까요. 유물론이란 내가 보고 만진 것 이외엔 믿지 않는 것이

32) Hun-Man Im, 150.

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4차원 5차원은 추상적인 것으로만 간주하죠.<sup>33)</sup>

김대호의 말과 함께, 북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도록 세뇌 학습되고 있기에 종교라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남한의 북한 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는 고태우의 논문은 로고테라피가 가지고 있는 북한 선교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sup>34)</sup> 즉, 로고테라피는 기독교 변증학이 아니면서도 그 이론 체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의 물질사관에 의해 세뇌 학습되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증해 보이는 로고테라피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것이다. 프랑클은 차원 이론(dimensional theory)에서 영적인 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술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연극 무대에 한번이라도 서본 경험이 있다면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 밝은 조명으로 인해 관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숨겨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환히 바라다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잊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듯 주님께서 만드신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sup>35)</sup>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학습 받은 북한사

33) Hun-Man Im, 240.

34) 고태우, “북한의 종교” 『북한의 이해』 (서울: 집문당), 199.

35)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8), 153-54.

람들에게 프랑클의 저서 여러 부분에서 논증되고 있는 ‘차원이론’(dimensional theory)은 훌륭한 기독교 변증이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선 위에 직각의 선들을 그리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2차원의 종이 위에 그려진 구부러진 선 위에 그와 같은 선들을 그린다든 것은 불가해한 것입니다. 수직선이라는 것은 접하는 선이 직각이 된다는 뜻인데 구부러진 선 위에 그와 같이 수직된 선들을 수평되게 그린다든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2차원의 종이 위가 아닌 만일 3차원의 공간을 생각한다면 구부러진 선 위에 평행되게 수직된 선들을 그리는 것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세계와 차원이 다른 신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높은 차원에서는 완벽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공룡의 발자국에서 우리는 다이노사우르스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세계에서 초자연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추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석이 아니십니다.”<sup>36)</sup>

프랑클의 ‘차원 이론’에 의하면 인간 세계와 하나님 세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인간 지혜의 기초이기에 만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인간 세계 차원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인간 차원의 낮은 한계성을 지적한다.<sup>37)</sup>

36)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8), 146-48.

37)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기독교인 로고테라피 학자인 레슬리(Robert C. Leslie)는 로고테라피 개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적용하고 연구한 그의 책 『예수와 로고테라피』에서 로고테라피를 평가하기를, “현재 존재하는 정신 치유 학문 세계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철학과 상담의 방법을 제공해주는 가장 뛰어난 학설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한다<sup>38)</sup>.

미국 미시시피 빌락시 해안에 위치한 미국 국군병원 의사이며 로고테라피 학자인 크럼보그(James C. Crumbaugh)가 삶의 공허함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미치유를 하다보면 언제나 자신의 삶의 궁극적 의미인 영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서술한 주장은 로고테라피가 가지고 있는 북한선교전략의 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생의 의미를 찾을 때는 언제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고테라피로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낮은 물질적 차원의 인간 존재 의의와 구분이 되는 높은 영적 국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고테라피 안에서 영적인 것은 사람 존재의 필수적인 것입니다.”<sup>39)</sup>

##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철저히 억압되고 통제된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이고, 정연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에 의해 세뇌 학습되어 살고 있다.

로고테라피의 북한선교전략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모든 여타 선교전략이나 전도 방법 그리고 다른 심리정신학의 이론과 방법을 부정하는 것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46-48.

38) Robert C. Leslie, *Jesus and logotherapy* (New York: Abingdon Press 1965), 9.

39) James C. Crumbaugh, "Logotherapy as a bridge between religion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8 (July 1979): 189.

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선교전략에 있어서는 데이튼(Dayton) 과 프레이저(Fraser)가 여러 선교 전략들을 세 가지 전략<sup>40</sup>)으로 정리한 그 모든 내용이 통합된 '통합 선교 전략'이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소고에서 앞서 본 연구의 한계에서 밝혔듯이 로고테라피가 북한 선교 전략으로써 내포하고 있는 필요성 및 가능성만을 논의하였다.

사이비적 유사 기독교 사상체제를 가진 북한사회의 주체사상은 실제에 있어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지만, 진정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게 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각 개인의 삶의 의미를 사회 정치적 생명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주체사상화를 구하는 것으로 세뇌 학습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 정치적인 생명의 의미를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도록 강요하는데 그렇게 왜곡된

---

40) 데이튼(Edward R. Dayton) 과 프레이저(David A. Fraser)는 기존의 여러 선교 전략을 아래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① Standard-Solution Strategies: 이 선교 전략은 과거에 혹은 어느 특수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던 선교 전략을 세계의 다른 여타 선교지에서도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의 문제는 각 지역의 각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회 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설이 문제이다.

② Being-in-the-way Strategies: 이 선교 전략은 사람들의 어떤 전략 수립보다는 선교 현장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그러기에 이 전략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의 문제는 한사람이 아닌 두사람 이상의 선교사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집할 수 있다는데 있다.

③ Unique Solution Strategies: 이 전략은 각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독특하게 다르다는 근본 가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곳의 각 선교 대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각각 독특한 환경의 독특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그러나 앞의 두 전략의 사용을 금하지 않으며 또한 새로운 전략의 개발에 있어서도 그 문을 열어 놓고 있다.

Dayton, Edward R. and David A. Fraser,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sm*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14-15.

사상적 정신 체제에 사는 북한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못 찾아 내면적 공허감을 토로할 때 로고테라피는 훌륭한 북한선교전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복음 수용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존의 '4영리' 혹은 '전도 폭발 이론' 등의 전도 방법보다는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구하며 공허해 할 북한 사람들에게 로고테라피적 논리와 내용은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 발견은 물론 사람의 궁극적 삶의 의미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 주는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것이다.

로고테라피가 북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선교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와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부인하도록 믿게 하는 무신론적 사회주의 사상인 주체사상교육을 논리적으로 학습 받아온 북한사람들에게 로고테라피의 차원이론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을 발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② 기독교인들이 마귀와 악령들을 대적하듯 기독교와 선교사를 대적해야 할 원수로서 세뇌받은 북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직접 변증하는 것보다 일반 심리치유학인 로고테라피는 선교 변증의 접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③ 주체사상의 사회 정치적인 생명 논법에 의해 생의 의미를 왜곡되게 세뇌 학습 받은 북한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생의 의미를 찾으며 공허감을 토로할 때 로고테라피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궁극적 생의 의미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의식하게 해주는 선교 전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